

김광현 등판때 평일경기라도 관중 2500명 더 온다

A급 선발투수 티켓파워의 비밀



흥캐드는 존재했다. 팀의 에이스가 선발등판하는 날에 더 많은 관중이 모여들었다. 빅센 벤 해켄(왼쪽 위), 두산 니퍼트(왼쪽 아래), SK 김광현(가운데), 삼성 **윤성환**(오른쪽 위), KIA 양현종은 지난해 광주동원에서 큰 역할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선발투수와 관중동원의 상관관계

벤 헤켄·니퍼트·양현종·김광현·윤성환 등
에이스 투수 나올 때 야구팬들 많이 몰려
주중경기에겐 승리 열망하는 열성팬들 주류
김광현 평일 평균 관중수 압도적 티켓파워

무엇이 팬들을 야구장으로 오게 만들까. 일단 성적표를 봐야 한다. 이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팬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구장이 없는 KBO리그의 속성상, 날씨도 큰 변수다. 야구에 대진이 어떤지, 공휴일인지 여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선발투수의 티켓파워는 얼마나 작용할까. 스포츠통계전문회사 스포츠투아이에 의뢰해 선발투수와 관중의 상관관계를 탐색해봤다.

●팬들은 승리를 원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팬들이 야구를 알고 구장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참고). 지난해 주중·주말경기에서 모두 팀 내 관중동원 1위를 차지한 투수는 넥센 배 헌전, 두산 니퍼트, KIA 양현종, 한화 이태양이었다. 2014년 이 4명의 투수는 두 달이 필요 없는 에이스들이었다. 이기는 경기를 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팀별 관중동원 1위 선발투수는?

팀	전체		평일(월~금)		주말	
	투수	평균 관중	투수	평균 관중	투수	평균 관중
삼성	윤성환	8046	백영주	7461	윤성환	9718
NC	변 해린	7743	변 해린	7041	민재현	9287
롯데	찰리	7773	찰리	6984	이재학	1만1044
LG	리오만	1만9501	류재국	1만8736	리오만	2만2435
SK	김광현	1만5123	김광현	1만2655	차병운	1만9718
두산	니퍼트	1만9454	니퍼트	1만5872	니퍼트	2만4351
롯데	오승무리	1만4034	장원준	1만2066	유원준	1만8214
KIA	양현종	1만1259	양현종	9532	양현종	1만6008
한화	앨버스	7701	이태양	5788	이태양	1만526

※2014년 규정이닝 이상 투수 기준

● 주중경기과 선발투수의 상관관계

프로야구는 인프라 혁신과 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가족적, 여성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날씨만 좋고, 매치다운 잘 받쳐주면 주말 경기에서 매진을 노리는 것이 더 이상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주중경기는 적어도 지금까지 관중동원의 사각지대처럼 여겨졌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금요일 관중이 일요일 관중에 필적할 만큼 증가했지만 화~목요일 3연전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날씨가 안 받쳐주면 5000명도 못 다.

이런 풍토에서 주중경기 관중동원 1위 투수 리스트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주중경기는 야구장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야구경기 지체에 몰입하려는 관중의 폭이 다져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팀에서 A급 투수를 낼 때 구장을 찾는 비율이 높아짐을 일 수 있다. KBO에 따르면, 2014년 7월 목요일 평균 관중(8881명)이 가장 낮고 월~수요일은 9000명대였다. 금~일요일은 1만1000명을 웃 도는데, 특히 토요일은 1만6142명에 달했다. 아무리 에이스를 내도 평일관중이 떨어지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 단, 이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출판들은 주중에도 기꺼이 야구장을 찾는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문학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줄 최상의 카드에 관중이 쏠린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SK인데, 주말경기 1위는 채병용이지만 주중에는 김광현이었다. SK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SK의 평일 43경기 평균 관중은 1만11명이었다. 그런데 김광현이 등판한 평일 10경기의 평균 관중은 1만2655명으로 치솟았다. 무려 2500명 이상 증가했다. 김광현의 티켓파워를 실감할 수 있다.

반면 선별투수들이 고른 삼성, NC, LG와 롯데는 주중 관중동원 1위 투수(배영수-찰리-류제국-장원준)와 주말 관중동원 1위 투수(윤성환-이재학-리오단-유먼)가 엇갈렸다.

두산 마야 ‘노히트노런’ NC 테임즈 ‘사이클링히트’

마야, 넥센전 136구 역투...역대 12번째
테임즈는 KIA전서 역대 17번째 대기록



두산 마야가 9일 잠실 넥센전에서 역대 12번째, 외국
인투수 2번째 노히트노런을 달성한 직후 두 팔을 번쩍
들고 포효하고 있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2015
TIRE O BANK
KBO LEAGUE

사상 최초로 하루
에 노히트노런과 사이
클링히트가 동시에 나
왔다. 잠실에선 두산
외국인투수 유네스키 마야(34)가 노히트노
런, 광주에선 NC 용병 4번타자 에릭 테임즈
(29)가 사이클링히트를 작성했다.

마야는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 어뱅크 KBO리그' 넥센과의 홈경기에 선발등판해 9이닝 동안 볼넷 3개만 내준 채 8탈삼진 무실점 무실점의 노히트노런으로 팀의 1-0 승리를 이끌고 시즌 2승째(1패)를 따냈다. KBO 리그 통산 12번째, 외국인선수 2번째 노히트노런이다. 지난해 5월 24일 잠실 LG전에서 N C참리 슈퍼의 이병 무일 3볼넷 7탈삼진 무실점 역투 이후 320일 만에 나온 대기록이다. 마야는 총 136개의 공을 던졌다. 투산은 3회

민병헌의 우전적시타로 값진 1점을 뽑았다.
경기를 지배한 투구였다. 마야는 2회 1사 후 유석민, 7회 2사 박병호, 9회 선두타자 김재현에게 볼넷을 각각 허용했을 뿐 한 번도 2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두산 벤치도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마야를 끝까지 믿었다. 7회 박병호의 볼넷으로 투구수 100개, 8회 2사 후 투구수 110개를 넘었을 때 한 차례씩 마운드를 방문해 마야의 의사를 물었음 뿐이다.

마야는 9회 첫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지만, 서건창과 이택근을 연속 땅볼

사상 최초로 하루
노히트노런과 사이
링히트가 동시에 나
다. 잠실에선 두산
야(34)가 노히트노
런부터 에릭 테임즈
가 시작했다.

사상 열린 '2015 타이
의 흥행기에 선발등
매만 내준 채 8탈삼진
노런으로 팀의 1-0 승
패를 따냈다. KBO
인선수 2번째 노히트
일 잠실 LG전에서 N
타 3볼넷 7탈삼진 무
에 나온 대기록이다.
던졌다. 두산은 3회

로 잡아낸 뒤 마지막 타자 유한준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마야는 “놀랍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고, 눈물이 많이 났다”며 “9회에는 내 힘이 어디서났는지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 던졌던 것 같다. 쿠바에 있는 가족이 내 경기를 인터넷으로 봤을 거라고 믿는다”고 감격해했다.

한편 테미즈는 광주 KIA전에서 1.3호 연타석 2루타에 이어 5호 솔로홈런, 7호 우전안타, 9호 3루타로 역대 12호·시즌 2호 사이클링히트를 기록했다. 4-2로 이긴 NC가 6연승을 달렸다. SK는 문학에서 kt를 13-2로 대파했다. kt는 개막 10연패, 대구에선 삼성이 구자욱의 끝내기안타를 앞세워 롯데에 5-4 역전승을 거뒀다. 대전에선 한화가 LG 1루수 양석환의 끝내기 실책에 편승해 5-4로 이겼다. ▶프로구 관련기사 3-4-6:12면

기·승·전·출생의 비밀...핏줄에 목매는 한국 드라마

현재 드라마 52%가 출생의 비밀 소재
식상한 전개, 한류에도 악영향 지적도

잇따라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먹히는' 소재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신만이 내 사랑'은
8월 방송이 28.4%(이하 닐슨코리아), '장미
빛 연인들'은 5월 28.9%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기복제의 우
려극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다
른 시각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특히 'K드라마'가 인기인 한류시
장의 미래를 위해서는라도 이런 반성은 필요하
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KBS 문보현 드라마국장은 “혈연주의를 중시하는 한국에서 그만큼 이야기로 만들기 편한 소재는 없다. 갈등 극대화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게으르고 구시대적인 소재 배치가 문제다. 시청률과 상업성만 쫓다보니 점점 다양성을 잃고 있다. 제작 일선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라마 평론가인 충남대 유석진 교수는 “가·중·장년·출생의 비밀 식 전개는 결국 (한류시장인)한국 드라마를 외면하게 한다. 일본에 이어 중국의 열기가 빠르다 식을 수 없다”고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투기 쉬운 재료로 공장에서 다량 찍어내는 기성품 같은 드라마는 문화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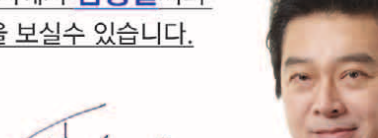


대표이사 서영숙

수술 없이 강한 남자!!

20대의 막강 파워! '뉴 맨'!

※ 홈페이지에서 **김형일**씨의
동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특 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특 허 명 칭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중국지사 T. 0433-286-5031
지사장 권대근

일본지사 T. 03-6233-8994
지사장 호시 고우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월의 흐름을 가장 먼저 느끼는 남성의 심할
힘도 약하고 중간에 시들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특허청 최초 발명특허!

발명의 명칭 "남성 성 기능 강화용 링"
세계최초 유일의 3개 부분 발명특허
2.5mm마다 차별화된 38가지 사이즈 '뉴맨'

사용즉시 나타나는 막강 파워!

1. 힘이 약하다 ➡ 20대의 막강 파워!
2. 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 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4. 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15일간 사용해보고 이유 없이 반품, 환불

세계인의 자존심 '뉴맨'

출시 10년만에 60만고객돌파! 일본과 중국 지사 설립
동남아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핸드폰 주소창에서 **뉴맨.kr** 을 입력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T.1588-3346,010-8020-3346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형일**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어딘가에 대하여 감동이나 기적을 말하죠?

제가 만난 뉴맨 또한 감동과 기적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삶의 질을 바꾸는 '뉴맨!!' 감동하실겁니다.

성기능 강화용 링

6.5이하	주문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상	주문